

제 47 호

연중제 29 주일

(전교회 주일)

1973. 10. 21

#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강론



## 의료 협동조합에

## 가입 합시다

### 이 대 권 신부

공경하올 교형 자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적인 가난과 질병입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 생활의 평화와 행복을 짓밟는 최대의 적이며, 웃음을 빼앗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질병은 빈곤의 길이며 사생활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에는 가난과 질병 신체의 장애 등으로 말 못할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보람없이 내버려져 있는 "내일의 희망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와 행복의 삶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만인의 건강을 위하고 질병을 추방하며, 여러분이 건강할때 병자에게 도움을 주고 병이 났을때 도움을 받는 상부 상호의 협동 생활을 이룩해 보려고 얼마전 뜻있는 분들의 주선으로 외국 은인들의 원조를 얻어 전복의료협동조합을 창립하고 활기찬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의료협동 조합원은 자기 자신이 참된 삶의 환희를 발견하고, 또 이웃을 돕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 경제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비영리 단체로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조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하게 살며 항상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자부하거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질병에 허덕이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지 모릅니다. 본조합은 여러분을 질병에서 구해 드리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베풀어 드리오니 부디 의료협동 조합에 가입 합시다.

1. 매년 1회 각종 건강 진단을 무료로 하여 드립니다.
  2. 본인은 물론 가족전원도 본조합의 혜택을 받습니다
- ① 입원의 경우

구분	본인의 경우			가족의 경우		
	혜택받 는비율	조 합 부담액	자 기 부담액	혜택받 는비율	조 합 부담액	자 기 부담액
3만원	70%	21,000	9,000	30%	9,000	21,000
5만원	50%	25,000	25,000	20%	10,000	40,000
10만원	30%	30,000	70,000	15%	15,000	85,000

### ② 외래환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상관없이 치료비의 2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본 취지를 양지하시고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모병원 내에 있는 본 의료 협동조합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구 경리국장, 의료협동 조합 이사장)

### ✽이주일의 미사 ✽

□입당송 응답이 계시었기, 주여 당신을 부르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와 이 말씀을 들어주소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고, 당신 날개 그늘아래 이 몸을 숨겨주소서.

□제1독서 (이사야53; 10-11 경향잡지10월호P.39) 속죄의 제물로 목숨을 내놓았으니 그는 후예를 보고 진생명을 누리리라.

□송계송 ◎야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여배 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주님의 말씀이 울리시도다.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도다. 주님은 정의와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도다.

□제2독서 (히브리 4; 14-16, 성서P.501) 굳은 신뢰로써 은총의 어좌로 나아가자.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람의 아들이 봉사하러 세상에 오셨으니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당신 생명을 바치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0; 35-45, 성서P.101)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목숨을 바치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비오니, 오늘 전교회 주일을 지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큰 뜻이 우리들의 뇌리 속에서 연중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수고하는 이의 위로자이신 주여, 일선 전교사들에게 영광스러운 당신의 진복으로 용기와 힘을 주소서. ◎

3. 주여, 지금은 독서의 가절입니다. 이 좋은때, 우리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눈돌리게 하소서. 특히 젊은이들을 불망서적의 해독으로 부터 지켜주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분열이있는곳에 일치될 위해 힘쓰는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염성체송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도다.

## 숲정이 산책



교무함  
미신입액



출발시켜 봅시다



□대화의 광장□

□전교회 주일□

# 열심히 읽고 배웁시다

김 영 구 신부

10월은 전교의 달이며, 10월 21은 전교 주일 이니 이날에 ;

- (가) “복음 생활화”를 통한 전교방법에 대하여 특히 강조 해주시며
- (나) 신자들을 전교회에 새로 많이 가입시켜 주 시며 (전교회비 년200원이상)
- (다) 또 이날에는 “전교 주일 특별헌금”과 “전 교회원의 회비 징수”를 실시하여 10월까지 교구청으로 송금할 일”

—본 교구공문 (제73-29호)참조—

먼저 말씀 드릴것은 해마다 지내는 전교의 달이기에 연 중 행사로 그냥 무심히 넘겨 버리는 무관심을 경계해야 하겠으며, 너도 나도 깊은 관심을 되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미신자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 옵니다. 그들을 그대로 버려 둔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학생, 노동자, 그 누구 할 것없이 각기 그 나름대로 그 주위에서 발견되는 선량한 종교심의 소유자들을 우리 교회로 안내해 들어 성세를 받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적당하고 적당치 않은 모든 기회를 막론하고 힘써,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더모태오 후서 4장2-5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 라고 명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도와 주는 행위로 들어 납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영신 사정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을 모르는 이웃에게 가톨릭을 알려 주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외인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또 반대하는 점도 많습니다. 외인들의 반대를 하나 하나 해명해주고 가톨릭을 옹기알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지 않는 한 훌륭한 교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신부나 주교님 보다 더 많은 위인들과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위인들한테 질문을 받는 일도 훨씬 많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가톨릭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자주 받으십니다.

그럴때, 여러분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있습니까? 그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게 신부님께 가 보세요. 신부님이 전문가이지 저희야 잘 모릅니다.”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좀 낫다는 사람이면 기껏해야 “책을 드릴테니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공부니를 배는 것이 예사가 아닙니까? 또는 이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은 이런 질문에 꼭 막혀서 못들은척 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이는 이런 질문을 받을까봐 가톨릭 신자가 아닌척 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딱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외인의 질문을 대답 할 수 있을만 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한 참다운 교우가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부터 모르니 어떻게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외인들이 묻는 질문은 가톨릭 잡지를 읽는 사람이면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교우 가정이면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기관지인 경향잡지 한권씩은 구독지 않고 얼굴이 간지럽지 않습니까? ! 이런 간행물을 읽는 교우라면 외인들의 질문에 하나도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는 교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저 핑계! 교회 간행물에는 질문 응답란과 교리 해설이 가끔 기재되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핑계입니다. 실상 우리 교우들은 책을 너무 안 읽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니 무엇을 알겠습니까? 많이 읽고 배워 우리 신앙을 전파 합시다. (전주사 교동 1가 132-4)

## \* 이 주간의 성경 \*

- 22(월) 독서 (로 마 4 ; 20-25, 성서 P.345)  
복음 (루 가 12 ; 13-21, 성서 P.163)
- 23(화) 독서 (로 마 5 ; 12-21, 성서 P.346)  
복음 (루 가 12 ; 35-38, 성서 P.164)
- 24(수) 독서 (로 마 6 ; 12-18, 성서 P.348)  
복음 (루 가 12 ; 39-48, 성서 P.164)

- 25(목) 독서 (로 마 6 ; 19-23, 성서 P.348)  
복음 (루 가 12 ; 49-53, 성서 P.165)
- 26(금) 독서 (로 마 7 ; 18-25, 성서 P.350)  
복음 (루 가 12 ; 54-59, 성서 P.165)
- 27(토) 독서 (로 마 8 ; 1-11, 성서 P.351)  
복음 (루 가 13 ; 1-19, 성서 P.166)



독일 직수입견 울크호 전주에

● 문의처 전화 ② 7692      임 미카엘 (한진) 애견

##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신풍, 다목적 전기 술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인사드립니다.

날로 새로워 지는 오늘날, 교향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실용적으로 꾸미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그맣게 전라 종합 전자 상사를 차려 문을 열었습니다.

자나시는 길에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모병원 옆(전 영화에속장 자리)  
전화 ② 2757      조 윤희(베드로) 울림



□ 성년 특집 □



# 봉인 줄 아세요?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말씀 한번 잘못 드려서 혼이 난 일이 있었다. 밤의 날에 다른 대학의 교수님을 모셔다가 특강을 들었다. 학장님은 학생들의 자율 활동으로 보시고 그 경비를 학생회비에서 내도록 말씀 하셨다. 책임자인 나는 견해가 달라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서 그만 불쑥 나온 소리가 "선생님, 학생들이 봉인 줄 아세요?"였다.

그때는 유난히도 <봉>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교수님의 오해는 대단 하셨다. 장로님이셨던 교수님께서서는 "소위 학생회 책임자가, 더우기 천주교 신자가 교수에게 그렇게 저질(低質)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하시며 분노하셨다.

학생들 속에서 살다가 보면 욕설을 너무나 자주 듣게 된다. 사회 환경이 너무나도 급변해서인지 그때그때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속어도 많지만, 아무리 유행이 바뀌어도 랭킹을 고수하고 있는 욕설은 따로있다. <무엇같이> 와 <무엇할>로 표현되는 그것이다. 이 말은 의례히 학생들의 의사표시 가운데 들어 있다. 어쩌면 양념 구실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다른 데에 있다. 모두들 욕설이라고 하는 그 두마디를 별로 욕설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항상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을 쓸 때의 표정이 별로 악의에 차있는 것도 아니고,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섞여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제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도 갈아 가버운 흥분마저 느낀다.

외모의 차림(머리, 옷차림등)이 그래서인지 남녀가 잘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오느니 싶다. 여권을 신장하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려면 그래야 하는 지는 몰라도, 순진한 여학생들의 입에서 조차 욕설이 튀어 나오는 것을 가끔 볼수 있다. 아찔할 뿐이다.

입에서 한번 쏟아져 나오면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인지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욕설이나 저속한 말도 문제이지만 위아래를 몰라보는 코허리에 걸린 말들도 문제이다. 어떻게든 존 쫓 모았다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가끔 시큰둥한 말을 곧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지금은 「전교의달」이다.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교회를 찾는 선의의 구도자(求道者)들에게 실망을 주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자. 우리보고 전하러신 말씀은 저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소식>이다. (갑)

## 요십이 (14) 金柄干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섬 바오로 서원

###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③3498)

- 10월 23일(화) - 8시 성경교실
- 25일(목) - 8시 지성인 교리
- 26일(금) - 8시 레크레이션
- (주최; 가톨릭 센타와 JOC)
- 외국 문화교실; English Conversation
- 매주; 화, 금 7시
- 독어; Heiderose; 화, 목 6시
- Morgentau; 월, 수 6시

**\* 알 림 \***  
교회와 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가톨릭 센타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외에, 바람직한 복지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오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부디 저희를 좀 도와 주십시오.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 김 원 준(야고버)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 전화 ⑥ 6094

**사 원 모 집**

구비서류-이력서와 주민등록 초본  
각 1통씩, 증명사진 1매

기 간-73. 9. 30~73. 10. 30

연 락 처-고사동 1가 417  
(전화 ④4755)

전동 4가 31의2(전북석행 앞)

차세한 것은 직접 오셔서 문의 하십시오.

- 주식회사성미 유리아 남전주 지점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 1. 사목 협의회 교구 위원 총회 (오늘 오전 10시, 가톨릭 센터)
  - ① 안전-임원개선, 사업및 결산보고, 사업 계획 수립
  - ② 참가자-각 본당 사도회장 및 각 지구 분과 위원장
- 2. 제 4지구 임원 개선

(소) (식)

분과 위원회		위원장			지도신부		
사선교계사부	도교육경회	조성호 (복자)	김병오 (전동)	김범함 (안김오)	영석 (영성)	일규 (천진택)	신부 (신부)
	녀	김양 (노송동)	정원 (중앙)	안김오 (덕진)	승부 (중기)	진택 (신신)	신부 (신부)
		장은수 (서학동)					신부 (신부)

- 3. 전국 울뜨레야 참가자 예비회의 (10월 23일 <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 ① 회비 (1,500원) 준비 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람. ② 길잡이 준비 하시기 바람.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전화 3074) 사도 회장 이복석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신용 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3. 교무금 자진 신입의 달
- 본당 유지를 위해 이달중에 교무금을 자진신입합니다.  
4. 주일 봉헌금 배가 운동 하루에 5원씩만 봉헌한다면 1주일에 최소한 35원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협력하여 주일금 배가를 이룩 합시다.  
 교무금 신입액 713,1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2,371원, 감사 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전화 5238) 사도 회장 조성호

- 1. 꼬미 시음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 2. 교무금을 자진 신입 합시다 (10월 안으로)
- 3.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 미사후와 수요일 저녁 미사후)
- 4. 구르실로 팀회합 (22일 <월> 저녁 미사후, 김 화영 씨택)
  - 지난주 성미 2말 5되 (누계 206말 1되)
  - 지난주일 봉헌금 11,701원, 감사 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전화 7032) 사도 회장 조해형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3. 중 고등 학생 월례회 (24일 <수> 오후 5시)
  - 4. 숙리산 옥외 행사 애령회 회원및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우 일인당 3천원 분납제로 함
- 지난주 신축 성미 6말 8되 (누계 79말)  
지난주일 봉헌금 18,690원, 감사 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전화 2276) 사도 회장 최상익

- 1. 영세식 (오늘 오후 2시반, 어린이 영세식도 있음) 영세하실분, 어린이 영세자, 대부·대모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성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 2. 오늘은 전교회 주일 (전교회에 가입 합시다.)
  - ① 희망자는 회비 200원을 총무부에 이달 말까지 내 주실시오
  - ② 기도문-“성 방지거 사베리오여, 우리를 불쌍해 여기소서.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자한번)”
- 3. 신년도 교무금을 신입합시다.
- 3. 꼬미시음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 5.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지난주일 봉헌금 9,027원, 감사 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중택 (전화 8082) 사도 회장 김중환

- 1. 학생회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반)
- 2. 복자 축일에 영세한 성심 여중고생에게 알린 오늘 공식 미사후 본당 사무실에 들려 주시오
- 3. 73년도 학생회지 원고모집 (10월 말까지) 종류-시, 수필, 일기, 서간문, 독후감, 기행문등
- 4. 푸른 양지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5,305원, 감사 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전화 3222) 사도 회장 송재진

- 1. 첫 영성체 (10월 30일 오후 4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2. 꼬미시음 (오늘 오후 1시반)
  - 3. 교무금 신입을 바랍니다
- 미 신입자 가정을 구역장과 사무장이 방문하겠음.  
 애령회 특별 헌금 7,575원  
지난주일 봉헌금 33,631원, 감사 합니다.



◎ 지난 목요일에 제4지구 (전주 시내 6개 본당)총회가 있었다. 어디에선가 착오가 있어서 모음이 혼선이 있었다. 후보 출정에 공고되기는 신입원들만 나오도록 연락이 되었다. 그런데 본당신부님들은 공지 사항을 알리면서 구임원들도 나오도록 했다. 그런데도 선의의 사람들은 후보만을 뽑은 것 같다. 그래서 인지 40여명의 참석

자 가운데 전(前)임원은 겨우 세사람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지구 분과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는는 분과별로 모임을 갖어 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신부님과 사도회장님 등이 협의하여 안배 조치를 했다. 그래서인지 신입 위원장 인사 순서가 되자 “무언가 흥정이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인사말씀과 함께 재조정해주었으면 하는 전의가 있었다. 능력별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장 선출에 별로 효과 없더라(?)는 예년의 경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정말 이래서 좋을건가?